

黃 vs 吳 양강... '5·18 모독' 김진태 완주 할까

〈교안〉 〈세훈〉

한국당 본격 당권 레이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황, TV토론 준비 대세 굳히기... 오, 수도권 비교우위에 승산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 당대회가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13일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황·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선관위원장직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표밭갈이에 나섰다.

한국당 당권 레이스는 황·오·김 후보의 3파전이지만, 결국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가 두터운 황 후보와 비박·복당파인 오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김 후보는 '5·18 모독'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넘겨져 최악의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당대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출이 친박계가 물밑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과 비박·복당파의 대표주자로서 김학용 의원이 붙었던 작년 12월 원내대표 경선 양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에는 친박계가 강한 응집력을 보이며 나경원이 압승을 거뒀다.

현재까지 양상은 원내대표 경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달 입당 직후부터 황 후보를 중심으로 친박계가 물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등 영남권을 황 후보가 접수한 것 아니냐는 징후가 곳곳에 포착된다.

이 때문에 황 후보는 앞으로 당이 주최하는 TV토론에 집중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말실수에 따른 돌발 변수를 줄이고 현재 판세를 굳히기 위한 '안전 행보'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승부가 일방적인 '황교안 대세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지내는 등 인물론에서 뒤지지 않고, 개혁보수 이미지를 구축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비교우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도 강점이다. 비록 영남권에서는 뒤져도 수도권과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얘기도 있다.

특히 이번엔 후보등록 보이콧을 선언했던 6명의 주자 중 홍 전 대표와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 후보로 단일화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와 함께 비박계가 구심점은 상실했지만, 원내대표에 이어 당권까지 친박계가

거머질 경우 자기 총선 공전에서 대거 물갈이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팽배해 어떤 형태로든 연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의 동성에도 이 같은 후보들의 상황이 담겼다.

황 후보는 그동안 친박계 지원설에 손사래를 쳤지만, 오후 친박계로 통하는 김태홍 의원의 의정보고회 참석을 위해 충남 보령을 찾기도 했다. 결속력도 다지고 영남권 밖으로 확장성을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지만, 이날 오전 돌연 취소했다.

반면, 오 후보는 오전 서울 도봉읍에서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흠그라운드'인 서울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오 후보로서는 중요한 행보였다.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 논란 대상이 된 김 후보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통해 대어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 총리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삼정동 총리공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齋藤福次郎) 일한의 원원맹 회장(중의원 의원)과 조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누카가 회장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또한 '일본 기업이 처음에 재판에 응해놓고 썼으니 수용하지 못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

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에서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중도개혁 정당으로 새 도약"

창당 1주년 기념식

바른미래당이 13일 창당 첫발을 뒀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현역 의원 10여명, 당직자와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중도개혁 정당'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다만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불참했다.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은 8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표출된 당 정체성 이견, 국민의당 출신 일부 의원들이 거론하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논의 등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록권 양당의 울타리 속에 차려진 이부자리에 앉아 정치하지 않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과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인 속단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평안하게 하는 대한민국 새판짜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실사구시 중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며 당 정체성으로 '중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에 대해 "때로는 왼쪽, 때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배가 침몰하지 않게 균형을 잡으며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에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한 기존 결정에 따라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세비 인상분 4195만원 전액을 단체 3곳에 기부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기념식 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하태경 "평화당과 통합 재언급시 징계"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3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이 거론된 데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 "지난주 의원 연찬회 때 많은 것을 합의하진 못했지만 평화당과의 통합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통합을) 얘기했던 의원이기에 동의했지만 어제 한 토론회에서 잉크도 안말랐는데 다시 평화당과의 통합을 거론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과 장병완, 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참석한 토론회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하나가 되면 3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 의원이 모여서 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정치적 신의를 깨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로 새 역사 시작"

'전국 경제투어' 부산 방문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국 경제투어'의 6번째 일정으로 13일 부산을 찾았다. (관련기사 10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 보고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 혁신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일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 비엔날레 관람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 시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부터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청취했다.

스마트시티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의 공공기능 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적용한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다. 부산시와 세종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대경이앤씨가 개발한 스마트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한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향후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단지 점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화순군 동면 사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고흥 도양읍(농동) 석우면매시골 연매출 3억선 연수익 1억선 귀농·귀어 적합 3억천
- 무안 운남면 바다인접 전 계획관리지 4505㎡ 조건은 상당요 1억5천
- 해남 옥전면 산·전·담 36625㎡ 조용한생활적합 1억3천
- 영암읍 학소리 농림지 담(목담) 24694㎡ 조용한생활적합 1억9천
- 원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앞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소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윤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익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 정읍시 신대면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 여수시 봉강동 343-1, 2, 344번지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대지 431평, 6차선 도로접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6834-7400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고 옆), (주)리치골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